

왕중왕은 누구... 유럽 최강 클럽 '빅뱅'

내달 2일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

10년간 5회 우승 'R 마드리드' 올해도 맨시티-뮌헨 꺾고 결승

27년 만 왕좌 도전 '도르트문트' 팀 결별 '로이스' 유종의 미 기대

올시즌 유럽 프로축구 최강을 가린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가 운명의 한판 대결을 벌인다. 각국 1부 리그 강팀들만 출전하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의 우승상금만해도 2000만 유로(약 298억 원)에 달한다.

레알 마드리드와 도르트문트는 다음달 2일 오전 4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축구의 성지'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3-24 UCL 결승전에서 '빅이어'(UCL 우승컵의 애칭)를 놓고 맞붙는다.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UCL 결승이 열리는 것은 11년 만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미 UCL 최다 우승팀(14회)이다. 이번에도 왕좌에 오르려면 15번째 우승 트로피를 수집한다. 지난 10년간 레알 마드리드는 5차례 UCL 결승을 밟았고 모두 우승했다. 최근 우승은 2021-22시즌이다.

올 시즌에도 레알 마드리드의 기세는 매



2023-24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열릴 영국 런던의 웨블리 스타디움 인근 도로에 결승전 로고가 담긴 깃발이 게시돼 있다.

EPA=연합뉴스

섭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8경기에서 단 한 번만 졌을 뿐이다. 29승 8무 1패를 거둔 레알 마드리드(승점 95)는 라이벌 바르셀로나(26승 7무 5패-승점 85)를 앞지르며 치 싸돌리고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UCL에서 성적도 매우 뛰어나다. 6전 전승

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레알 마드리드는 16강부터 시작된 토너먼트에서 각국 강호들을 차례로 만났다. 16강에서 라이프치히(독일)를 제친 레알 마드리드는 8강에서는 지난 시즌 3관왕의 주인공이자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를 1,2차전 합계

4-4로 맞춘 뒤 승부차기에서 4-3으로 눌렀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UCL 12경기에서 8승 4무 26득점 15실점을 기록하며 한번도 패배하지 않았다.

레알 마드리드가 전력상 열세를 딛고 명승부를 연출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 맨시티

를 무너뜨리자 '웁스 DNA'가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레알 마드리드는 4강에서 김민재가 뛰는 독일 축구 명가 바이에른 뮌헨까지 1,2차전 합계 스코어 4-3으로 따돌렸다. 유럽 정상급 팀을 연파한 레알 마드리드의 최고 강점은 관록이다. 노병 카를로 안

첼로티(이탈리아) 감독은 이번 시즌까지 6차례나 UCL 결승 무대를 밟았고 이 가운데 4번을 우승했다.

또 이번 UCL 결승전을 끝으로 팀을 떠나는 마르코 로이스(도르트문트)와 토니 크로스(레알 마드리드)의 대결 역시 흥미를 끈다. 무려 12년간 도르트문트에서 활약한 로이스와 10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을 책임진 크로스에게는 소속팀 마지막 경기다.

리그에서 '명가' 바이에른 뮌헨의 기세에 눌려 있는 도르트문트가 마지막으로 UCL 결승에 진출한 건 11년 전이다. 2012-13시즌 바이에른 뮌헨에 1-2로 져 우승을 눈앞에서 놓친 도르트문트는 당시의 아픔을 털어내려 한다. 이 경기를 뒀던 선수가 팀의 간판이자 정신적 지주인 공격형 미드필더 마르코 로이스다. 12시즌 동안 도르트문트 유니폼을 입고 공식전 427경기를 뒀던 로이스는 아름다운 작별을 꿈꾸며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난다.

18일 2023-24 분데스리가 최종전에서 홈 팬들은 로이스를 향해 조직적인 대규모 응원을 준비했고, 로이스는 팬들의 맥을 찔렀다. 레알 마드리드는 4강에서 김민재가 뛰는 독일 축구 명가 바이에른 뮌헨까지 1,2차전 합계 스코어 4-3으로 따돌렸다. 유럽 정상급 팀을 연파한 레알 마드리드의 최고 강점은 관록이다. 노병 카를로 안첼로티(이탈리아) 감독은 이번 시즌까지 6차례나 UCL 결승 무대를 밟았고 이 가운데 4번을 우승했다. 또 이번 UCL 결승전을 끝으로 팀을 떠나는 마르코 로이스(도르트문트)와 토니 크로스(레알 마드리드)의 대결 역시 흥미를 끈다. 무려 12년간 도르트문트에서 활약한 로이스와 10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을 책임진 크로스에게는 소속팀 마지막 경기다. 리그에서 '명가' 바이에른 뮌헨의 기세에 눌려 있는 도르트문트가 마지막으로 UCL 결승에 진출한 건 11년 전이다. 2012-13시즌 바이에른 뮌헨에 1-2로 져 우승을 눈앞에서 놓친 도르트문트는 당시의 아픔을 털어내려 한다. 이 경기를 뒀던 선수가 팀의 간판이자 정신적 지주인 공격형 미드필더 마르코 로이스다. 12시즌 동안 도르트문트 유니폼을 입고 공식전 427경기를 뒀던 로이스는 아름다운 작별을 꿈꾸며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난다.

김민재 소속 뮌헨 새 사령탑에 '콩파니'... 3년 계약

한국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뛰는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이 새 사령탑으로 뱃싱 콩파니(38-벨기에-사진) 감독을 선임했다.

뮌헨 구단은 30일(한국시간) 콩파니 감독과 2027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뮌헨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맹활약한 김민재와 '특급 골잡이' 해리 케인(잉글랜드) 등이 가세했으나 이번 2023-24시즌 무관에 그쳤다.

분데스리가에서 지난 11시즌 동안 지켜온 패권을 레버쿠젠에 내주며 3위에 그쳤고, 독일축구협회(DFB) 포칼에선 2라운드 탈락했다.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에선 준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스



페인)에 밀미를 잡았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에 올해 2월 토마스 투헬(독일) 감독 체제를 올 여름까지만 유지하기로 하면서 새 사령탑 물색에 나섰다. 레버쿠젠의 '무패 우승'을 이끈 사비 알

론소 감독 등이 후보로 거론됐으나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1986년생의 젊은 지도자 콩파니가 사령탑으로 낙점됐다. 콩파니 감독은 선수 시절 벨기에 대표팀과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에서 투지가

뛰어난 주축 센터백으로 활약하고 주장 역할을 맡은 적도 있는 레전드다.

선수 은퇴 이후엔 벨기에 안테를레흐트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2022년부터 최근까지는 잉글랜드 번리를 이끌었다. 콩파니 감독이 지휘한 번리는 2022-23시즌 잉글랜드 2부 챔피언십 우승으로 프리미어리그(EPL)로 승격했으나 2023-2024시즌 EPL에서 5승 9무 24패로 19위(승점 24)에 그치며 다시 2부로 강등됐다.

당장 다음 시즌 분데스리가 정상 탈환 등 명가 부활을 노려야 하는 뮌헨이 EPL에서 5승에 불과한 강등팀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 게 적절한 선택이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daily.com

'르브론' 아들과 함께 코트 밟을까 브로니 제임스 드래프트 신청



미국프로농구(NBA)의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40-LA 레이커스)의 아들 브로니(193cm-사진)가 다음달 열리는 NBA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한다.

AP통신은 30일(한국시간) 브로니의 매니지먼트사 대표의 말을 인용해 "브로니가 2024-25시즌 아버지와 함께 NBA 코트에서 뛰기를 희망하며 드래프트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아버지 르브론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 소식을 올렸다. NBA 신인 드래프트는 현지 시간 6월 26일 27일 이틀 동안 미국 뉴욕의 바클레이스 센터와 ESPN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에 다니는 브

로니는 2023년 경기 도중 심장마비가 일어나 쓰러지기도 했으나 이후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NBA에 도전장을 냈다. NBA 최고의 스타로 꼽히는 아버지 르브론은 아들과 함께 코트에서 뛰고 싶다는 희망을 평소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2023-24시즌 뒤 레이커스와의 계약이 끝나는 르브론이 어느 팀을 선택할지 아들 브로니가 어느 팀의 선택을 받을지 농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LA 레이커스가 자유계약(FA) 선수인 제임스를 불러 앉히기 위해 브라운이를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